

단 단 한 벽

李 東 燦



한 겨울의 강추위가 지겹다 싶더니 어느덧 南녘의 花信이 전해오고 즐거운 行樂의 철이 문을 열어가고 있다. 워낙 山과 바다를 좋아해서 한달에도 몇번씩 行裝을 차려 自然을 찾다보니 더욱 두터워지는 親近感 속에 느끼는 일도 여러가지다. 나날이 늘어나는 探訪客들의 점점 화사해지는 차림새와 느긋한 行態에서 풍요로워지는 生活수준을 실감하게 되고 하루가 다르게 가꾸어 다듬어지는 自然의 짜임새를 대하면 나라살림의 成長을 엿보게도 된다.

이른바 自然保護운동이 제창된지도 10여년, 요란한 口號의 숲 속에 어설피지만 했던 國民운동의 規範과 秩序가 제법 틀을 잡아가고 있어서 意識과 行動의 成熟으로 느껴져 흐뭇하다.

그렇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안타까움과 조바심이 다가오는 行樂철을 앞두고 한결 더하다. 行政의 規制와 先導로 이제 그 틀은 잡혔지만 그것이 국민 속에 體質化하고 生活化되려면 얼마의 세월이 더 있어야 하는 것일까.

요즈음에도 우리의 山과 들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태연하게 저질러지고 부끄러운줄 모르는 群像들을 흔히 보게 된다. 뻔하게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고치지를 못하는 고질적 결함을 본다.

기껏 자리잡힌 自然보호운동의 틀이라는게 아직은 쓰레기 안버리기와 죽기가 고작인데 滅種의 위기에 처한 희귀동물의 박제품들이 외국에서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다는 보도나 가지치기를 빙자한 과잉전지, 도벌목 등을 볼 때마다 그 下手人은 다름아닌 우리 백성이려니 하면 아득한 벽에 부딪친 허탈감마저 느끼게 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앞으로 더욱 슬기롭게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생활규범을 갖는 보다 앞선 民族으로의 轉身을 요구하고 있다.

「막스 메버」는 단단한 벽을 강력한 힘으로 서서히 다져가는 것이 바로 「政治」라고 했지지만 이 겨레의 습성의 벽은 지난 30년간의 한 世代를 지나는데 동안 어지럽도록 다양한 價值觀의 변화를 통해 옛것과 부딪치며 불균형의 쪼릿소리가 튀기는 속에서 형성되고 두꺼워진 것이니 行政力이나 口號만으로 뜯어 고쳐질 수 없을만큼 단단한 것인지도 모른다.

자연보호나 질서의 개조운동이 국민의 共感帶를 이룰만큼 진전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좀더 成熟과 先進의 경지까지 이르려면 口號나 行政力보다는 국민일상생활의 德目으로 着根하여 의식의 살이 되고, 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本會 理事, 코오롱그룹 會長〉